



2025년 전북여성신년인사회 개최 전북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14일 전북 여성의 힘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5 전북여성신년인사회'를 열고 신년 떡케이크 커팅 등의 행사를 치렀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도, 5대 목표 실현으로 '전북 경제 부흥' 견인한다

**익산국석클2 완주 수소 등 신규 국가첨단산단 예타 추진
 민선 8기 1조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 9천68억 조성 추진
 중기육성자금 3천억·소상공인보듬자금 2천8백억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국내외 경제 흐름을 넘어 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한 민생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전북경제 부흥'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목표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조1천603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민선8기 14조원을 돌파했고 제22회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수출액 약 5천8백만 달러) 했으며 기회발전특구(88만평)를 지정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누적 투자실적 17조를 목표로 미래 성장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첨단국가산단 2개소(익산 국석2, 완주 수소) 예타 통과, 창업벤처 펀드 결성액 9천

68억원 달성,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3천억)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접근성 확대(60억)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1천950명) 등 경영 안정망을 확보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개선(혁신기업 육성, ESG경영 지원 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금리 2~2.5%), 착한가격업소를 확대(489개소)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나아가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새만금고용특구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등 특례의 실행 방안 확보와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으로 새로운 전북 경제 성장 기틀을 다진다.

상반기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조세감면 특례 세법 개정 후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전북에 투자할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해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 본격 시행, 이주직원 정착 지원금 확대, 유치기업 본사 이전 시 투자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3천억 규모 및 정책자금 기업별 융자한도 확대와 함께 기업에로해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전담 공무원 교육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을 2천8백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지자체 최초로 차별화된 벤처펀드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스타트업 현장실증, 창업기업 통합추진단 운영, IR행사 기업 추천제 등을 운영하여 민간 중심의 창업 성장 디딤돌을 만든다.

/최준호 기자

도 농생명지구, 김치산업 협약 '첫 결실'

**전북특별법 시행...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도약대
 도·대상(주)·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 협약
 7개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중 최초 기업과 협약 체결
 김치원료 안정적 공급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기술 지원**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자치도가 대상(주)와 김치 산업의 거점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과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에 기대감이 집중된다.

전북자치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상(주), 고창군과 함께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과 이정성 대상주식회사 총기RPD부부장(상무), 심덕

섭 고창군수가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비전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은 농생명산업지구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농가를 위한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김치 원료 공급 거점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및 기업유치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김치 생산, 수확, 보관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고, 농가 조직화와 품질 균일화를 통해 김치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1966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기업으로, 세계 3대 발효전문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성 대상 상무는 "전북이 가장 강점을 지닌 분야인 농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농생명산업지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 사시사철 김치산업 지구가 국가 김치산업의 거점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청년농 유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전북 농생명산업지구는 미래 농업 선도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농생명산업지구 7개 선도지역은 ▲고창군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구축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익산시 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임실엔치즈·낙농 산업지구로 구성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 '착한 선결제' 캠페인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극복

**소비축진 통한 빠른 지역경제 회복 촉매역할 기대
 선결제 인증 도민 대상 추천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북자치도가 내수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는 골목상권에 투입되는 현금의 시기를 앞당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내달 28일까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 연말 개최한 민생경제 살리기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신뢰와 ▲어려운 민생경제

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취지다.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체(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 먼저 결제하면 자영업자는 결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내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도는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에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을 요청하고 도민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확산해 지역경제 근간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직원 송별회·한

영회 또는 정기회의 등 개최 일자, 참석자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간담 등은 영세 소상공인 식당을 활용한 선결제 후 재방문을 약속하고 연중 소요 물량이 파악되는 사무용품, 임차료 또한 선결제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예정이다.

또한 내달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10만원 이상 착한 선결제 인증 도민을 추천, 총 300만원(1인 2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캠페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와 SNS에서 배너를 클릭하고, 소상공인 업체를 통한 선결제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된다. /김은지 기자

半九十里

반반 아홉구 열십 마을리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함

익산시 왕궁리오층석탑과 일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 비전·민생 해결 거점 마련

정책비전센터·민생지원센터 현판식 가져...김 도지사, “도민 목소리 담아 전북 발전 초석 다질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3일 오후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상무위원회와 함께 정책비전센터·전북민생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현판식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두 센터를 설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및 민생 해결의 거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정현을 의

산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와 김보금 전북민생지원센터장, 이동기 전북정책비전센터장을 비롯 도의원, 기초의회위원장, 주요 정무직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정책비전센터는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각 시·군 정책 담당 부서,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

올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민생지원센터는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과 민생 현안 대응을 주요 목표로 설립됐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정책비전센터와 전북민생지원센터는 전북자치도 발전의 구심점이자 도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미래 비전 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 도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정책비전센터

와 전북민생지원센터가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북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정책비전센터와 민생지원센터가 전북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상무위원들은 “이번 전북정책비전센터와 전북민생지원센터 발족이 전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정책비전센터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상생모범단지 3곳 선정

서신신일·나운보람더하임·부송하리움에 표창 및 동판 수여

전북자치도는 14일 도청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공동주택 상생모범단지 표창장 및 동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관리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을 통해 상생 협력과 주거문화 개선을 목표로 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프

젝트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단지에 수여된다.

전주 서신신일아파트,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 익산 부송하리움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상생모범단지로 선정됐다. 이들 단지는 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신신일아파트는 관리비 절감으로 종사자 복지와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켰고 나운보람더

하임아파트는 근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이뤘다.

부송하리움아파트는 태양광 설치와 휴게시설 정비로 지속 가능한 상생 문화를 구축한 점이 돋보였다.

전북자치도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근무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모범 사례가 도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산돼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공동주택 상생모범단지 표창장 및 동판 수여식을 계기로 관리종사자 복지와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켰고 나운보람더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주관 종합평가 ‘A등급’

한국어·직무 교육 등 추진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지역 문화 이해도 높여...전국 2위 쾌거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 주관한 ‘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A등급(전국 2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전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 양산·창원·김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목표 달성률, 참여자 만족

도 등 7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전주 상공회의소 건물 6층에 문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문(법률, 노무, 행정 등) 상담 △한국어·직무 역량 강화 교육 △통역 지원 △생활필수품을 담은 전북사랑 키트 제공 △우리 지역 역사배우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직무 교육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주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군별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하고 외

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정책비전센터



전북도, 2036 올림픽 유치 기원 GBCH 챌린지 전개

전북자치도는 14일 김관영 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 확산을 목표로 ‘GBCH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한체육회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오는 2월 말까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릴레이형 챌린지로,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 기업대표,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다. 이들은 전북 올림픽 유치 기원 인증

샷 또는 영상을 기관 홈페이지나 개인 SNS 계정에 올리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는 자유 참여형 챌린지다. 도내 대학생, 청소년 등 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36하계올림픽 등의 해시태그와 응원 문구를 인증샷과 함께 SNS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비트시대...“창안자 역할 필요”

일과 놀이가 하나되는 비트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놀이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를 알아야 하고 문화정책 수립과정에서 모방자에서 창안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은 14일 전북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백년포럼 제23강 특강을 통해 “문화정책에서도 스토리텔링, 디자인, 표현, 공감, 감성, 배려, 이해, 놀이 등의 방법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포럼은 ‘문화 없이 발전 없다’를 주제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사회

와 개인의 가치관에 주는 변화를 살펴보고 놀이와 일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회에서 문화정책을 통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원장은 “일과 놀이가 하나되는 비트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놀이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를 알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원(始原)이 있어야 변형도 가능한 시대”라면서 “문화정책은 모방자에서 창안자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남호 원장은 “감성적 공감 문화의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일

‘도전·혁신 향한 여성의 힘’...전북 여성 대도약 다짐

전북여성신년인사회 개최

전북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14일 전북 여성의 힘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5 전북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지일관(初志一貫): 도전과 혁신을 향한 여성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자치도의 더 특별한 100년을 향한 포부에 전북여성의 힘을 더해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관영 도지사,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계

각층의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년 인사 교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 2036

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초지일관 정신으로 전북자치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처음의 각오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올신년 전북자치도는 성공의 모습으로 존재감을 빛낼 것”이라며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역 여성계와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비트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전북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창안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교통 안전 수칙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겨울용 타이어 활용 (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전주시, 전통과 혁신 살려 글로벌 문화산업도시로

신년브리핑 통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 제시...“미래 경제를 이끄는 문화산업수도로 거듭날 것”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그간 올곧게 지켜온 전통을 잇고, 혁신을 입혀 세계적인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의 4대 추진 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천년 고도 전주, 역사문화도시 도약 ▲평소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 등이다. 특히 시는 올 한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가 가진 특색있는 문화·관광을 활용한 색다른 콘텐츠 운영과 이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먼저 시는 방치된 팔복동 옛 휴비스 여성기숙사를 리모델링해 미래 기술과 예술 콘텐츠가 융합하는 ‘미래문화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등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명실상부한 글로벌 영화영상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영화산업의 역량을 더해 오는 2034년까지 새로운 영화영상산업의 생

태계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큐뮤필름스튜디오 코리아 전주 개소에 이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 한해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이 본격화되고, ‘K-Film 제작 기반 허브 구축’과 ‘한국형 영화 교육원 사운드랩 구축’ 등 영상 촬영 및 제작 유통 시스템도 구축·지원된다. 여기에 시는 올 상반기 중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 ‘전주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완산주차장 부지 ‘음식관광 창조타운’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각각 착공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주관광재단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관광재단은 전주시 특성을 반영한 관광콘텐츠의 고도화·다각화, 정부 관광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성 확보에 앞장서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대거 조성한다. 동시에 과거 전주를 방문했던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관광 활성화 사업들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주페스타’를 비롯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가유신야행 ▲조선팝 페스티벌 ▲전주단오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연중 펼쳐진다. 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는 등 올 한해 역사문화도시로의 도약에도 매진한다. 끝으로 시는 명품스포츠 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전주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앞으로 미래 경제를 이끄는 문화산업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 설 명절 대비 승강기 안전점검

12개 다중이용 시설서 운행 승강기 94대 대상 특별점검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도와 시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버스·항만터미널(2개소), 철도역(3개소), 대형마트(4개소), 영화관(3개소) 등 총 12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94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매월 1회 자체 점검 실시 및 국가승강기 정보시스템 결과 등록 여부 ▲엘리베이터 안전센서 및 비상호출장치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작동여부 ▲승하차장 1m 이내 설치된 적치물 ▲출입구에 안전주의표지 부착 여부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하며 이후에는 매년 정기검사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이용 방법, 사고사례 및 사고·고장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특히 명절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안전점검과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관내 승강기 점검과 승강기사업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매주 특별 대책회의의 ‘민생안정’ 정책 본격화

민생안정 가속화 위해 1분기 매주 정기 회의 개최, 분야별 추진과제 논의

전주시가 최근 불안한 정국과 경기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4일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해 각 부서별 민생안정 추진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특별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 우병기 전주시장이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연장선에서 진행한 것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은 ▲민생안정 지원 관련 사업 신속 추진 및

예산집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 적극 홍보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발굴 지원 등이다. 특히 시는 기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추진된 부서별 주재 회의를 대면회의로 방식을 변경해 긴밀한 협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오는 3월까지 매주 ‘특별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해 민생안정 지원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운동목 전 부시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경



전주시는 14일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해 각 부서별 민생안정 추진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특별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이용 대상 확대

청년·생애 첫 계약 가구 등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확대

전주시가 그동안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를 올해부터는 모든 전주시민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담 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

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 상담(063-281-2136)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주 시청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온라인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개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매주 화요일 상담사를 통해 유선으로 받을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청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르신 등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뿌리산업 생태계 활성화 대안 모색

전주시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14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인 전주 대장간에서 전주지역 금속가공 소공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금속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과 태현진 전주금속가공 소공인협의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뿌리기업을 대표하는 6개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국장은 2025년 전주시 기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가 뿌리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과 맞춤형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제

조업의 중추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펼쳐온 다양한 성과와 노력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개관한 전주 대장간의 역할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금속가공 소공인들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한 대장간의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가 열린 전주 대장간은 총사업비 36억6000만 원이 투입돼 설립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로, 금속가공 소공인들을 위해 공동작업장과 첨단 장비운영실, 측정실 등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은 물론, 소회의실과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등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 시는 전주 대장간을 지역 금속가공 소공



인의 거점으로 삼아 기술 혁신과 상품 경쟁력 제고, 시장 확장 등을 위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태현진 전주금속가공 소공인협의회장은 이날 “전주 대장간이 소공인들에게 실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을 위해 미소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시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경우 추가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 6~10등급 및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3년간 대출 이자를 연 3% 지원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이상 소상공인 점포’에서 ‘2000㎡ 이내 15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등으로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어려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골목상권 경영안정 상반기 집중 지원 나선다

전주시가 최근 혼란한 정치 상황과 내수부진 등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집중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정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물량을 설명절을 맞아 확대 발행했고, 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해마다 추진해온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시는 국비 미편성 및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당초 올해 전주사랑상품권을 1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를 2000억 원까지 늘리고, 이 중 1,350억 원을 상반기

에 집중 발행했다. 또, 국비 편성 및 도비 추가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를 더욱 늘려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힘겨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드림축제 ▲동네슈퍼(나들가게) 공동세일전 등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물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 6~10등급 및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3년간 대출 이자를 연 3% 지원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착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 2025년 본격 추진
한국전력과 협력...510억 원 규모 전력인프라 확충, 입주 기업 전력 공급 확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 사업자로 하여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보조 255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전력개폐소 등)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 공급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요가 큰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충분한 양의



새만금개발청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가졌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국비 예산(65억 원)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공사 계약 등 연내 공정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등 공급 처리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도시군 설맞이 장애인생산품 특별판매 행사

오늘부터 도시군청서 장애인생산품 선물세트 판매

전북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24일까지 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특별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청(15일)을 시작으로, 전주시청(16일), 전북도청(17일), 정읍시청(20일), 김제시청(21일), 익산시청(22일), 부안군청(23일), 완주군청(24일) 순으로 전북도청을 비롯해 7개 시군청 로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한 떡, 김, 누룽지, 홍삼 등 명절맞이 선물세트와 방향제, 비누, 물티슈 등 생활용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판매행사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뜻깊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많은 도민들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앞두고 '잡음'

선거관리위원장 후보 논란...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사 선택권 가로막아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둔 가운데 추진위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시공사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H건설사를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포스코이앤씨를 비방,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시공사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주거안정과 평등,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일부 추진위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현 추진위원장의 조합장 추천을 강요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문제가 확산, 자진사퇴한 점을 고려해 선거관리위

원장 결정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사전 홍보가 차단된 것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차단·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시공사가 공정하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라중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일원 12만2,226㎡ 부지에 1,937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2006년 시작해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추진위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D건설사와 접촉하며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으나 최근 D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자금난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받고 H건설

사로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라중 추진위는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국내 메이저급 시공사 9곳에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자체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H사와 D사는 현재까지도 주민들로부터 사전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없어 양 시공사에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어 포스코측에 홍보활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시공사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일부 업체만의 독점적 활동이 아닌, 여러 건설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주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서 "모든 참여 기업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만이 주민들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라중 A조합원은 "포스코, 현대, 대우 모든 홍보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유독 포스코 활동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홍보하면서 경쟁적으로 입찰제안을 제출해야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에 많은 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재개발사업 전문가도 사전 홍보 활동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외국인직접투자 2년새 61% 급감, 내란 등 겹쳐 신규 투자 부재

외국인직접투자 7억7천8백만 달러, 전년 15.1% 하락...도착액 3억6천3백만 달러로 20.7% 감소, 신고액 절반

전북 도내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투자 심리 위축이 가속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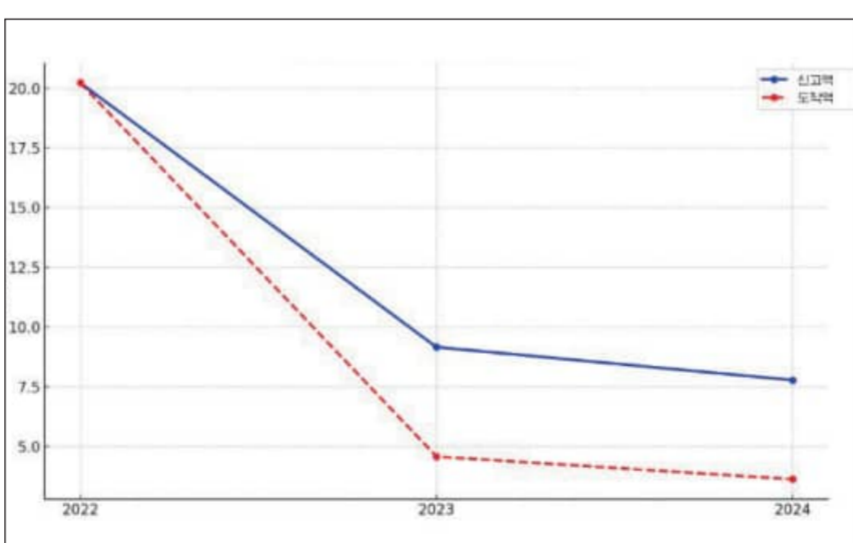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전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 전년 대비 15.1% 감소한 7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0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파른 하락세다. 2023년에는 9억 1600만 달러로 54.7% 급감했으며, 2년 사이 투자액이 61.5%나 줄어들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도착액은 3억 6300만 달러로, 신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년(4억 5800만 달러) 대비 20.7% 급감했다. 도착 업체 수는 2024년 42개사로, 2023년 43개사와 비

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투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선 신규 대형 투자의 부재가 지목된다. 지난해 주요 투자를 살펴보면, 동우화인켈의 1억 7800만 달러 규모 투자는 미처본 이익잉여금을 활용했다. 전주페이퍼의 8100만 달러 투자는 글로벌세아그룹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레이첨단소재의 7200만 달러 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전북의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변경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는 여전히 외국 기업들의 투자 불안 요소를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이차전지와 연계한 중국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대외 여건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고 여기에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도내에 투자 결정을 관망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새만금 3·7 공구 매립 완료로 산업시설용지 분

양이 가능해지고, 탄소산단도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 부지 공급으로 투자 유치가 개선될 것"고 말했다.

다.

/김관 기자

LX공사,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 지적재조사 참여 민간대행자 모집

참여 희망 민간기업 31일까지 신청, 614개 사업지구 선정...청년고용 가점 추가, 사업비 배분 비율 상향 민간 참여 확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는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5%인 554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규모는 전국단위 시·군·구 223개 지자체의 614개 사업지구, 19만 6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국토교통부의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바른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X공사는 이번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사에 평가에서 초급기술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 가점을 추가했다.

또한 업무 공정 비율에 따른 민간대행자의 사업비 배분을 높여 수익을 높이는 등 민간대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완화해 민간과 상생·협력을 통해 사업 가속화를 이끌 계획이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24년까지 사업 대상 554만 필지 중 190만 필지인 34.3%를 완료했다.

/최준호 기자



NH농협 전북, 4급 승진자 임용장 교부 및 나눔활동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4일 25년도 4급 승진자 18명에게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승진자 18명은 승진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고자, 임용장 교부식을 마친 뒤 '영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영케어러'란 고령이나 장애·질병 때문에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을 말한다.

승진자를 포함한 전북본부 임직원들은 떡국떡, 한우사골곰탕 등 식료품 17종이 담긴 NH행복(福)꾸러미를 제작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전북아동권리센터)과 협력하여 도내 54가정에서 꾸러미와 승진자들의 좋은 기운을 담은 편지를 같이 전달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 공개 추첨

‘선지원·후추첨’ 방식 학교 배정... 전주, 군산, 익산 등 총 39개교 8933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해은 전주중등교육협의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전주 23개교 5488명, 군산 8개교 1828명, 익산 8개교 1617명 등 총 39개교 8933명이다.

학교 배정은 체육특기자, 교육지원대상자,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다

자녀가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 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초 값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지망 지원자부터 정원수(학교별 선배정자 제외)만큼 컴퓨터로 추첨해 이뤄졌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누리집 및 전북고입전형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입학등록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며, 배정된 고등학교 누리집 통해 학교별 등록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는 분께 감사하다”며 “평준화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참여 아동 9,655명

504명 불참, 2명 소제 확인 불가... 경찰 수사의 의뢰 요청

2025학년도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결과 96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은 전년도 조기입학, 외국국적 아동 등을 포함해 총 1만159명이다. 이는 전년(1만1523명) 대비 1364명(11.8%) 감소한 것이다. 취학대상 아동 9,655명(95.0%)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504명(5.0%)이 불참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504명 중 취학 유예·면제, 부모와 해외출국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익산 2명으로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유선 연락·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지역, 올해 학교 8곳 폐교... 지난해 대비 감소

초등학교 7곳·중학교 1곳 통폐합... 전북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사례집’ 발간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학교 8곳이 문을 닫는다.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하는 학교는 군산 개야도초등학교와 군산 소룡초등학교, 군산 마룡초, 김제 심창초, 임실 신덕초, 고창 선동초, 임실 운암중학

교로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곳이 폐교된다. 지난해 10곳보다 소폭 감소했다.

군산의 경우 개야도초는 인근 소룡초와 마룡초는 서수초로 통합된다.

김제 심창초는 진봉초로 통합되고, 임실은 신덕초가 운암초로 운암중이 관촌

중으로 고창은 선동초가 공음초로 통합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지역 내 폐교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사례집’을 발간해 폐교 활용을 고민하는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례집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폐교의 위치와 특징, 장단점 등을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학교 부지에 대해 지역교육지원청의 활용 계획을 받을 예정”이며 “활용 방안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공통장의 역사’ 국내학술대회 개최

‘공유·공존·공생을 위한 대안’... 총 5개 발표 및 토론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공통장(Communs)의 역사: 공유·공존·공생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이 주최하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주대 대학본관 222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단 단장인 변주승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화(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1·2부에 걸쳐 총 5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서 공유된 공통장의 역사부터 해체되고 분열된 역사까지 다각도에서 조명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안정용 교수, ‘전북 빅데이터 공동연구회’ 신임 회장 취임

“여러 기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활동 확장하겠다” 포부

전북대학교 안정용 교수(자연대 통계학과)가 전북지역 빅데이터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은 지난 10일 전북대 진수당 개교 77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열렸다.

안 신임 회장은 그동안 33개 기관과의 MOU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임직원들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썼던 유철중 전임 회장(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의 뒤를 이어 새롭게 연구회를 이끈다.

안 회장은 “공동연구회는 전북지역 여러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전략 마련의 밑거름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기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성민 기자



지난 10일 전북대 진수당 개교 77주년 기념홀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전북대 안정용 교수가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우석대 김주영 교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역량개발인 증센터장인 김주영(약학과)(사진) 교수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주영 교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과 관리 등의 업무에 매진해 왔다.

특히 융합전공개발과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용, 마이크로디그리 관리 체계

설계 및 운영에 일조했다.

특히 우석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한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2023)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김주영 교수는 “교내 혁신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겨울철 독감 예방 수칙

**흐르는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손씻기**

**기침할 때 기침
예절 실천**

**기침과 열이 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이상
실내자주 환기하기**

**독감예방 접종
맞기**

**독감유행시기에는
사람많은곳 가지않기**

군산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서비스 시행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지난 1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시행된다.

군산시는 기존에는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소음대책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한 뒤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증명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단,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신청 안내를 위하여 정부24 정보 등 수신확인에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가 취소되어도 안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개인별(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거나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군산시는 피해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

익산시·(주)포네이처스, 44억 원 규모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MOU) 체결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통해 식품시장을 선도할 동력을 확보한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포네이처스와 44억 원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이광석 (주)포네이처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포네이처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4,553㎡(약 1,400평)에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 설비를 도입한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주)포네이처스는 특혜제품인 8곡 누룽지를 품은 새로운 개념의 바비큐 삼계탕과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개



지난 14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주)포네이처스 투자협약 및 기탁식을 개최했다.

발·생산하고자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공장 신축은 올해 착공에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준공되면 4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에서 (주)포네이처스는 파트너사인 (주)더온, (주)푸드앤, (주)한정씨엔에스와 함께 8곡 누룽지 삼계탕 500개(900만 원 상당)를 기부하여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탁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광석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 바비큐식 삼계탕을 세계로 판매하는 기지를 익산에 만들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간편식 등 변화하는 식품산업에 맞춰 끊임없이 도전해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전 운영

20세기 현대미술 대표주자 앙리 마티스... 무료 전시 진행

군산예술의전당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세기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라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까지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레플리카전을 오는 1월 16일부터 3월 2일(매주 월요일 정기휴관)까지 2,3전시실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야수주의의 창시자로 강렬한 색채와 형태를 표현하며 회화, 조각, 그래픽 아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품 활동을 펼친 예술가로 담대한 색채, 유려한 움직임, 특유의 표현방식으로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명성을 드높였다.

이번전시에는 그의 일대기를 <모방과 습득>, <야수파-오달리스크>, <페이퍼 컷 아웃>, <JAZZ BOOK>으로 4가지 이야기로 나눠 시각적 예술의 혁명적 발전을 이끈 발자취를 한눈에 관찰 할 수 있는 명화를 나만의 색채로 꾸며보는 컬러링 체험과 앙리 마티스의 말년 작품으로 유명한 색종이 풀리주를



활용한 킷앤킷 프로그램을 전시 체험으로 준비하였다.

전시설명(도슨트)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1시, 14시, 15시, 16시 총 4회 진행되며 설 명절 기간(1/27 정기휴관으로 제외)도 운영한다.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전'은 무료로 진행되며, 오전 단체관람의 경우 사전예약(454-5530)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https://www.gunsan.go.kr/arts)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의회, 제301회 2025년 첫 임사회 개최

올해 시정계획 발표... 민생경제 회복, 문화·관광 도시 조성, 미래 산업 육성 등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사회에서 올해 시정계획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 문화·관광 도시 조성, 미래 산업 육성, 도시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지원에 30억원을 투입하고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준거센터 운영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결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33억원을, 아양산 목조 전망대 설치에 130억원을 투입해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또한, 내장산문화광장에는 381억원을 들여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엑스트립 스포츠 시설 등을 건립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해 창의인재 육성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172억원을 들여 정읍학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교육·돌봄·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그린바이오산업 529억원, 레드바이오 산업 310억원, 반려동물 산업에 333억원을 투자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환경과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100억원),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장(82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황도현 축구



장(50억원), 정읍스포츠타운(319억원), 복합체육관(370억원) 건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여기에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농촌협약 사업(408억원)을 통해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귀농·귀촌 지원, 스마트 축산장비 보급으로 도농 상생을 도모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육아수당 지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84억 4000만원) 등을 통해 시민 복지를 강화하고,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와 지역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강화... 3억7000만 지원

농가당 최대 7000만 원 지원... 병해충 방제랩트, CCTV, 차량 및 대인 소독시설 등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확충을 위해 3억70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당 최대 7000만원원을 지원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를 지원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CCTV, 차량 및 대인 소독시설, 병해충 방제랩트, 연무소독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품목별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 60%와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사업 신청은 농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동서, 사업계획 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견적서 등이다.

서류는 사업 신청서와 평가표 점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축산과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코린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읍시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임상부 대상...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취지

익산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본·필수·맞춤서비스 38종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상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사업이다.

익산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는 164가구, 214명이다. 기본 분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와 상담을 진행해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필수 분야로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양교육 ▲부모상담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13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 분야는 대상자의 필요사항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발달 ▲가족통합으로 이뤄진 4개 항목에서 ▲밀착한 지원 ▲언어치료 ▲문화체험 ▲가족힐링캠프 등 24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 전북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익산시의회 보건의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사진)은 지난해 31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최재현 위원장은 2023년 8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익산시의 정신질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러한 최재현 위원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재현 위원장은 이외에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주택 침수 피해 예방, 해충 방역, 생활악취 발생 시설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익산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실용운동 문제 해결 등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낙농 지원사업 추진... 3억 6천만 지원

정읍시가 낙농가들의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 6000만원을 들여 8개의 낙농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주요 지원사업은 ▲젖소정액 지원 ▲착유우 유두침지제 지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낙농 도우미 지원 ▲낙농 기자재 지원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지원 등이다.

우선 젖소정액, 착유우 유두침지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은 젖소 번식과 깨끗한 우유 생산을 돕는 필수 약품을 지원한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

업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전문 도우미를 파견해 일시적인 위탁 관리를 지원하고,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은 농가에 젖소 보정금 장치 등을 제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사업은 착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을 통해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 세척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스포츠 도시 익산, 유도 전지훈련 유치 성공

익산시가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의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다.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대한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55명이 참여해 지난 12일부터 담금질에 돌입했다.

또한 14일간 진행되는 훈련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청과 용인시청, 인천체고, 선문대 등 전국 30여 팀 5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익산시에서 열리는 첫 유도 전지훈련이다. 시는 지난해 개최한 '백제왕도 익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도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전국생활체육 유도



대회는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2,000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유도 종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전지훈련 유치로 이어졌다.

시는 뛰어난 스포츠 기반시설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지훈련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순창 '군민 행복' 실현 주요사업 추진

전원마을 500호·경천 수변개발 등 정주기반 강화...인구 유입 초점 농민기본소득·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축제 활성화

순창군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을 견고히 다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군은 14일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의 주재로 부군수, 전 실과소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군정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총 249건의 부서별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사업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며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행정성과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부서장들은 올해 핵심 전략사업으로 ▲전원마을 500호 본격 조성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 사업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등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구축 마련에 주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공설 추모공원 조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순창군은 14일 최영일 군수 주재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중점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행정성과를 다짐했다.

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 군수는 ▲농민기본소득 확대 ▲아동행복수당 지원 확대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임신지원금 지급 ▲청년유입 및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등의 보편적 복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올해 개최 예정인 ▲제20회 순창장류축제 ▲군민의 날 및 군민

체육대회 ▲봄나물 축제 등을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사업 적극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본격 대응을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추진과 더불어 현장 행정 중심의 민원 처리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감동 행정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함께 이뤄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노인 임플란트비 최대 100만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 대상...수술 전 신청 필수

순창군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1개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과 진료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에 방문신청 하면된다.

단, 수술비 지원은 임플란트 수술 전 신청이 필수이며, 수술 완료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650-5246)으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청년사관학교, 남원 청년 대상 창업성공패키지 설명회 열려

지난 10일 남원청년마루에서 중소벤처진흥공단 전북지사와 남원청년마루가 함께 창업을 꿈꾸는 남원시 청년들을 위해 '2025년 청년(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청년마루 입주기업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청년마루 1층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청년사관학교의 박재민 교수의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창업성공패키지 및 중소벤처진흥공단 대출 등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꼭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소개했다.

특히, 남원지역에서 활동중인 2024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선배창업인(주식회사 서하 김앤김대표, 주식회사 아리당 이상현 이사) 소통시간을 가져 창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기도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전북대 남원캠퍼스 입학 시민 등록금 지원

지역산업학과 신·편입생 모집...남원시민 한해 1학기 등록금 50% 지원

남원시가 2027년 개교 예정인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와 대학 등록금 인상이슈 속에 2025학년도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신·편입생 69명을 모집하고 남원시민의 경우 등록금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는 전북대와 남원시의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재교육형학과로 목질공예, 화장품부터 2개 전공 운영 중이며, 1차 모집은 1월

24일까지이고, 2차 모집은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다.

입학 자격은 ▶10개월 이상 관련 산업체 종사자 ▶1차 산업 종사자(영농조합법인) ▶남원시 소속 직원으로 신입생 40명, 편입생 29명 총 6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시민에 한해 1학기 등록금 120만원 중 50%인 60만원을 지

원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남원시 관내 지역산업학과(보건소 내 건물)에서 평일 야간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 등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취·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했으며 재학 시에는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 받고 졸업 시에는 전북대학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글로벌 수소도시' 비전 실현 세부사업 시동

지난해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 비전'을 발표한 완주군이 올해를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완주군은 올해 국제수소거래소 대선공약 반영, 수소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수소전문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군은 정치권과 연계해 근거법령 제정과 향후 대선공약에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산단 후보지에 1,200억 규모의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사업 확보를 위해 전북특자도와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소융합특성지원센터 등 수소전주기 지원인프라 조성은 조기에 완료하고, 완주 수소연구원과 협업해 수소도시 비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간다.

지난 2023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수소특과 국가산단단지 는 올해



완주군이 올해를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 사업을 본격화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산단 계획을 수립한다. 전북특자도와 연계해 수소기업 집적화를 위한 토대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차 오너들의 편의 보장을 위한 수소상용차 안전검사센터사업은 2026년 국가예산사업으로 확보 추진하고 관련 사업들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전략사업 추진으로 수소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6일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완주군의 수소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로 도약 비전'을 내걸고 2030년까지 3대 목표, 3대 추진전략, 12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징수실적 및 관리·운영 시책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체세

외수입 징수를 총괄지표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80점)과 차량관련과태료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올해 남원시는 총괄부서인 세외수입팀과 부과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변호관 영치와 같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22억원을 징수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경찰서, 완주군의회 의원에 감사장 전수

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는 14일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유공으로 완주군의회 유익의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이주갑 의원,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에 각각 전북경찰·전북자치경찰위원회 감사장을 전수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완주군의회, 완주군과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3일 본회의를 통과, 12월 24일 제정·시행 중이다.

위 조례는 완주군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완주군의회 유익의·이주갑·이순덕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주갑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더욱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안활동 기반이 마련돼 자치경찰제 고도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봉동읍 미원상사(주) 장학금 6,695만원 기부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미원상사(주) 전주1, 2공장(1공장장 천문기, 2공장장 전명욱)이 완주군에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6,695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3일 완주군에 전달된 장학금은 1년간 삼례읍 아이돌세상(공동생활가정)과 13개 읍면 총 37명의 학생에게 매월 10만 원~3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원상사(주) 전주1, 2공장은 계면활성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9년부터 '두명후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두명후원'은 각 공장 인근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후원 방식으로 디딤씨앗통장, 보육원, 조손가정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여한 미원상사(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미원상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순창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508건, 총 1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과세기준일(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가 있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6)로 전화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소양면 응치전적지 재조명·종합사업 추진

유히태 완주군수가 연초방문지로 완주 소양면을 찾아 응치전투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육상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응치전투는 수적 열세에도 조선군과 의병들이 왜군에 맞서 치열하게 항전해 전라도를 지켜낸 전투다. 행정, 정치권,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2022년 응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홍보관·관리사무소 건립, 전투 관련 유구 정비, 옛길 정비 탐방로 조성 등 종합정비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1,800억 원 규모의 전력

지 명품숲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소양 시험림 일원에 임진왜란 전사관과 체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응치전적지와 국가사적지를 연결하는 탐방로 정비를 완료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치러지던 응치전투 추모행사로 전북특자도 주관 행사로 격상해 전안군과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 92면을 조성하고, 풍류학교 등과 연계한 감성여행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위봉산성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구간 탐방로도 정비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해경, 유기견보호소에 자원순환 재활용 담요 40장 전달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제(13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경비함정에서 사용하던 폐침구류 40장을 군산시 대야면 소재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군산해경이 자원을 재활용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유기동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나눔 활동이다.

해경은 이날 군산시 동물보호단체를 방문해 사용되지 않는 침구류를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유기동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힘썼다.

특히, 이번 기부는 군산해경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지역 내 유기동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단순히 폐기될 침구류가 이제는 주인을 잃고 버려진 유기동물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원진알미늄, 완주군에 라면 100상자 전달

주식회사 원진알미늄(대표이사 원태연)이 14일 완주군청을 찾아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후원된 라면은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원태연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주고 싶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속적인 봉사 후원을 보내주는 원진알미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유)성원엘리베이터, 전주시에 1000만원 전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지속적인 후원 활동하겠다"

(유)성원엘리베이터(대표 양해정)는 14일 전주시청을 찾아 동절기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유)성원엘리베이터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승강기 제조업체로,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유)성원엘리베이터(대표 양해정)는 14일 전주시청을 찾아 동절기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예정이다. 양해정 (유)성원엘리베이터 대표는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추운 겨울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신 (유)성원엘리베이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 신입 국장 4명, 장학금 400만원 기탁

고정희·최준양·김진옥·손문국 신입 국장, 지역 인재 양성 위한 따뜻한 희망 전해

정읍시 신입 국장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신입 국장 4명으로부터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탁에 참여한 이는 고정희 문화행정국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 손문국 의회사무국장이다.

이들은 민생안정지원금에 사비

를 더해 뜻깊은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정읍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신입 국장들의 나눔은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며 이들의 기부가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정읍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를 높이며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주)제이엠조형산업 남원시에 500백만원 쾌척

남원시 노암농공단지 소재 (주)제이엠조형산업(대표 김제이)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노암농공단지 소재 조형물 및 구조물 제작 설치 전문업체인 (주)제이엠조형산업의 김제이 대표와 김현기 이사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기부 등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기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장학금이 우리 지역의 아이

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기탁의 뜻을 전했다.

최경식 시장(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남원시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주)제이엠조형산업 김제이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소중한 뜻이 더 많은 지역의 꿈나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학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방모 회장·조찬방 대표, 김제시에 500만원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재경김제향우회 김방모 회장과 동일제약 조찬방 대표가 지난 8월과 13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3년 연속 기부자로서 누적 기부금이 각각 1500만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방모 회장과 조찬방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재경김제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를 맞아 뜻깊은 기부에 참여했다.

김 회장과 조 대표는 "김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언제나 도와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신 두 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김제 발전 및 김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부안면 지사협, 아동돌봄 기관 간식지원사업 진행

고창군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상수, 공공위원장 전기홍)가 14일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돌봄기관 간식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호를 파악한 후, 성장기 아동들을 위한 신선한 과일, 치킨, 토스트 등의 간식을 5회에 걸쳐 전달한다.

전기홍 공공위원장은 "성장기에는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하데, 추운 겨울철 친구들과 맛있게 먹고 즐겁게 생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부안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군한돈협회·한우협회·소상공인연합회, 지역사회 기탁행렬 이어져

임실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문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성두)는 14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해 달라며 한돈 330kg(3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창우)에서도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가구와 함께 온정을 나누고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대환)는 소비가 위축돼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자영업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금 25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와 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에서는 매년 한돈·한우의 소비 촉진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물품과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 및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고원 협동조합, 진안사랑장학 재단에 1백만원 기탁

진안고원 협동조합이 지난 1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백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전달식에 참여한 박천장 대표는 "진안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진안고원 협동조합의 따뜻한 마음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진안=전길범 기자

겨울철 "저온화상" 예방법

**전열기구는
적당한 거리유지**

**온수, 전기매트의 경우
그위에 이불 깔아 사용**

**잠자리에 들 때는
전원 끄기**

**전원을 켜고 잠을 잔다면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거나
온도를 저온으로 맞추기**

〈一事一言〉



최상목은 왜?(2)

유시민
작가

최상목은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정책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소규모 개방경제'라, 많이 들던 말 아닌가. 그렇다. 한국이 바로 성공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표 사례다. 미국 유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최상목도 이런저런 분석모델에 한국경제 데이터를 넣은 계량경제학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최상목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윤석열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십 년 검사를 했는데도 헌법과 계약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장주의 광신자 밀턴 프리드먼의 광신도인 윤석열의 경제정책 참모로 일했을 리 없다. 재정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자 감세로 천문학적 세수 핑크를 내거나, 한국은 행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회계를 분석하거나, 외환채 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 난도질하지 않는다.

최상목은 자리를 주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포피아'의 전형이다. 정책에는 무능하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유능하다. 그런 사람이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서 헌법재판관을 둘만 임명하는 편법

으로 권한대행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 실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주호가 최상목보다 낫다는 게 아니다. 최상목이 이주호보다 유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최상목이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일은 누가 권한대행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일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나 안다.

첫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판사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무엇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다면 말인가.

둘째,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라. 경호처장을 비롯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면직하라. 최상목이 수방사와 경찰청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야당은 최상목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놀이'를 그만두라. 최상목이 용산 대통령실의 방탄차를 요구했다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런 짓을 계속하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던져질 것이다.

최상목이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공범일 수 있다고 본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한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지시를 담은 'A4 종이'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읽지도 않고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차관보한테 맡겼단다. 최상목 자신도 사람들이 믿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최상목에게 윤석열이 그 종이 에 적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여 러 차례 물었다. 그는 모른다고 딱 잡아챘다. 나중에 '예비비'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무엇을 위한 예비비 마련 지시는 내란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최상목과 차관

보는 입을 맞추어 그 사실을 숨겼다. 최상목은 국가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위 'F4 회동'을 했고 재정경제부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불법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 나는 최상목이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하지만 국회가 그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란에 동조했던 그렇지 않은,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의 진상을 신속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하도록 필요한 일을 제때 한다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다.

민심은 중력과 같다. 잠시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견디지는 못한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공무원과 군인들을 사병(私兵)처럼 부렸다. 경호처는 관저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주변 숲에 철조망을 깔았다. 마치 농성하는 무장 테러집단처럼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의 관저 농성은 오래가지 못한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경호처에 무기사용 지시한 윤석열의 폭력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태는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무기 사용까지 독려하며 사적인 방패로 삼고 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며, 대통령직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같이라도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제보가 공개됐다. 이는 공권력을 자신의 사병처럼 동원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로,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의 길로 내모는 행위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자리다. 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이는 무책임한 태도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지시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을 강조했지만, 이는 작금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분명한 지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며 사

실상 윤석열의 법치 훼손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압살하기 짝이 없다.

경호처의 일부 간부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며 조직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로 전략시키고 있다. 이는 경호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국가기관은 특정 인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경호처 수뇌부는 윤석열의 지시가 법과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윤석열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특정 인물이나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경호처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적 행태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관하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와 공직자 모두가 헌법적 책무를 다해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다. 더 이상의 법치 훼손은 국민과 국가에 돌아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이다.

선운사 범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공예, 의식법구
-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출판)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안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겨울 보리밭에 가면 / 류근

겨울 보리밭에 가면 맑은 가난과 속삭여 섬진 보리밭 겨울로 가면 아무리 삶이 쓰라려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목숨의 잠입한 지붕들 있다 살아갈수록 환하게 드세어지는 황금의 우렁찬 뿌리들 있다	살아라 살아라 살을 에이며 종소리로 씩씩 씩 때밀러 가는 눈보라 저 거친 머리 위에 더 큰 봄 있다
---	--	---

시인 약력 ; 196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후 작품 발표를 하지 않다가 등단 18년 만인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렸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전북도민의 희망찬 미래의신문

전북타임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장수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민관 협력 강화

위기가구 ·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취약계층... 복지안전 울타리 조성 · 복지사업 추진 만전

최훈식 장수군수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안전망 강화”

장수군은 군민 모두가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수형 뚝! 뚝! 복지 울타리'는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복지 모델로, 군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행복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수군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갈테니, 따뜻하고 포용적인 복지가 모든 군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수군은 인구(고령화 39%) 및 지리적(산지 80%) 특성상 복지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안전 및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군은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 울타리를 조성하는 장수군 복지모형 '장수형 뚝! 뚝! 복지울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에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복지안전 취약마을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안전에 취약한 위기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사례회의 등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해 겨울철 복지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읍·면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이웃돕기 기탁물품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과 '행복우편 배달 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복마차 사업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복지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

한 물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취약 대상을 수시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행복우편 배달 서비스는 장수우체국과 협업체인 인적 네트워크로 우체국의 집배원을 활용, 관내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가구 166세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필품 배송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과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복지안전에 취약한 총 63개 마을을 대상으로 군·읍·면 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인력과 협력하여 마을 주민에게 현장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더불어 생활실태와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복지안전 취약 발굴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서비스 신청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복지인적망 강화를 위해, 장수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장수군 복지심화대학'을 4차례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협의체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등 민·관인력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책임감을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리더의 소통방법', '나눔&기부 사람이 먼저다', '소진 예방 및 사기진작 교육(힐링영화관람)', '잘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참여자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은 고독사 예방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독거노인 중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 100여 명을 선발해 AI 활용 안부확인 서비스(네이버 클로바콜), 찾아가는 행복 배달, 스마트팜(수경재배 장비) 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4개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군은 2025년에도 주민참여형 풀뿌리 마을공동

체 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AI 관련 신규사업 및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